

'23년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31.3억불 지원

- 양자 23.0억불, 다자 8.3억불 실적 집계
-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은 0.18%로 상승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1일(한국시각 22:00)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23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실적은 전년 대비 3.2억불(11.4%) 증가한 31.3억불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연도별 실적 (억불)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잠정)
실적	23.6	24.6	22.5	28.7	28.1	31.3
(증가율)	(7.1%)	(4.4%)	(△8.7%)	(27.7%)	(△2.2%)	(11.4%)

- '23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은 전년 대비 원·달러 환율 변동이 둔화*된 가운데 양자원조(23.0억불)와 다자원조(8.3억불)의 실적이 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 증가가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 원달러 적용환율(증가율) : ('21) 1,144.46 → ('22) 1,291.41(12.8%) → ('23잠정) 1,306.01(1.1%)

< 2023년도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백만불) >

구분	2022	2023(잠정)	전년대비	증감률	비중(%)
■ 총량 (A+B)	2,810	3,131	321	11.4%	100.0
- 양자 (A)	2,221	2,296	75	3.4%	73.3
무상원조	1,530	1,569	39	2.6%	(68.4)
유상원조	691	727	36	5.1%	(31.6)
- 다자 (B)	589	835	246	41.9%	26.7

□ 양자원조(23.0억불)는 무상원조(15.7억불) 및 유상원조(7.3억불) 모두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 무상원조는 교육·보건·공공행정 등 사회분야 지원(+0.8억불), 해외 긴급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인도적 지원(+0.2억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 유상원조 또한 기후변화 대응·산업개발 등 수원국의 재정 수요 증가로 프로그램 차관 지원이 확대(0.8억불)되면서 전년대비 5.1% 증가했다.

□ 다자원조(8.3억불)는 전년도 출자·출연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저소득·취약국의 코로나 대응 및 개발도상국의 경제회복 지원 등을 위해 국제개발협회(IDA)**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증가(+1.9억불)하면서 전년대비 41.9% 증가했다.

* 다자 지원실적 : ('21) 7.0억불(+41.3%) → ('22) 5.9억불(△16.4%) → ('23^{잠정}) 8.3억불(+41.9%)

** 세계은행(WB) 산하 국제금융기구로, 저소득 개도국에 대해 장기 무이자 자금 지원

○ 우리 정부는 다자원조를 통해 전세계 개발재원 부족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의지를 적극 표명했다.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31개 회원국*의 총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규모는 2,237억불을 기록하며 전년 2,107억불 대비 6.2% 증가**했다. 이는 전년도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및 인도적 지원이 지속 증가한 가운데,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대한 출자·출연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 주요 국가 공적개발원조(ODA) 지원실적(억불) : ▲미국 660(+9%), ▲독일 367(+3%), ▲일본 196(+12%), ▲영국 191(+21%), ▲프랑스 154(△4%) 등

** 양자원조 전년대비 5% 증가, 다자원조 전년대비 11% 증가

○ 전체 31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지원 규모 순위는 14위로 나타났으며, 경제규모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규모를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ODA/GNI) 비율은 0.18%로 전년에 비해 0.01%p 증가했다.

□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역할 수행을 위해 '24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역대 최대 폭 (31.1%)*으로 확대한 바 있어,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실적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ODA 예산(증가율) : ('22년) 3.94조원 → ('23년) 4.78조원(21.3%) → ('24년) 6.26조원(31.1%)

○ 정부는 향후에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계속 확대하여 분쟁·재난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을 통해 상생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끝.

담당 부서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채연주 (02-2100-8137)
		담당자	전문연구원	장은오 (02-2100-8348)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성과지원과	책임자	과 장	맹준호 (044-200-2195)
		담당자	전문위원	채정민 (044-200-2175)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익순 (044-215-8710)
		담당자	사무관	김정도 (044-215-8715)

결 재	2024년	장·차관 보고 여부 <input type="checkbox"/> 완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요			
		영문 보도자료 여부 <input type="checkbox"/> 필요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요			
	4월 12일	담당	과장	국장	대변인

참고

20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실적

순위	국 가	공적개발원조(ODA) (백만불)		순위	국 가	국민총소득 대비 공적개발원조 (ODA/GNI) (%)	
		2023년	2022년			2023년	2022년
1	미국	66,040	60,522	1	노르웨이	1.09	0.86
2	독일	36,682	35,640	2	룩셈부르크	0.99	1.00
3	일본	19,601	17,500	3	스웨덴	0.91	0.89
4	영국	19,111	15,762	4	독일	0.79	0.85
5	프랑스	15,426	16,014	5	덴마크	0.74	0.67
6	캐나다	8,074	7,836	6	아일랜드	0.67	0.63
7	네덜란드	7,361	6,470	7	네덜란드	0.66	0.67
8	이탈리아	6,014	6,646	8	스위스	0.60	0.56
9	스웨덴	5,606	5,458	9	영국	0.58	0.51
10	노르웨이	5,548	5,161	10	핀란드	0.52	0.57
11	스위스	5,164	4,497	11	프랑스	0.50	0.56
12	스페인	3,833	4,272	12	일본	0.44	0.39
13	호주	3,253	3,046	13	벨기에	0.44	0.45
14	한국	3,131	2,810	14	캐나다	0.38	0.37
15	덴마크	3,083	2,771	15	오스트리아	0.38	0.39
16	벨기에	2,826	2,657	16	아이슬란드	0.36	0.34
17	아일랜드	2,815	2,410	17	폴란드	0.34	0.53
18	폴란드	2,604	3,496	18	뉴질랜드	0.30	0.22
19	오스트리아	1,954	1,847	19	리투아니아	0.28	0.36
20	핀란드	1,570	1,616	20	에스토니아*	0.28	0.54
21	체코	789	1,051	21	이탈리아	0.27	0.33
22	뉴질랜드	746	515	22	스페인	0.24	0.30
23	룩셈부르크	580	530	23	체코	0.24	0.38
24	포르투갈	526	523	24	슬로베니아	0.24	0.29
25	그리스	325	360	25	미국	0.24	0.23
26	헝가리	304	371	26	호주	0.19	0.19
27	리투아니아	191	243	27	포르투갈	0.19	0.21
28	슬로바키아	175	172	28	한국	0.18	0.17
29	슬로베니아	163	169	29	헝가리	0.15	0.26
30	아이슬란드	115	94	30	그리스	0.14	0.17
31	에스토니아*	109	201	31	슬로바키아	0.14	0.15
	개발원조위원회 (DAC) 합계	223,721	210,660		개발원조위원회 (DAC) 평균	0.37	0.37

* '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신규 가입국